

## 타이어뱅크,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 오늘 오전 인수 절차 발표 산은 등 채권단 입장 주목

국내 타이어 유통기업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해외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산은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변화가 주목된다.

26일 지역 경제계와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향토기업인 타이어뱅크는 27일 오전 10시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김정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 추진 절차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김 회장이 대전 상의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 앞으로 일정과 기간의 과정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태껏 '해외매각 절대 반대'를 고수해온 금호타이어 노조 입장에서는 국내 인수 기업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정승강 노조 국장지회장은 "국내 건설한 기업이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매각조건과 동일하게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매출 3000억대 유통업체가 같은 해 2조9472억원 매출을 기록한 '공룡' 제조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어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차용, 산업은행에 별도의 인수의향서를 접수하지 않은 만큼 오는 30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과 해외매각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을 중단키로 '선언'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시조문"이라며 "어떠한 인수의향서도 접수받지 못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타이어뱅크는?

국내 400개 매장 연 매출 3천억

타이어뱅크는 지난 2003년 설립된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로 국내에 400개 매장을 두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화제가 됐다.



미세먼지에 갇힌 광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6일. 광주시 서구 양동 DGB생명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이 미세먼지에 뿌옇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60일 개헌정국'...국회 협상 돌입

### 문대통령 발의... "국민 위한 개헌" 4월 임시국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개헌안 처리의 공을 넘겨받게 됐다. 1987년 6·10 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87년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래 거의 31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분궤도에 오른 것이다. <관련기사 3·4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35분(현지시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앞서 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재가 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부비서관, 김의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58분 국회를 방문해 정경구 국회 입법처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

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개헌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또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4월 임시국회 중에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 모두 '분권'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

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생각이 너무 다른 탓이다.

국회에 남은 시간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80일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상 국회의 표결 시한은 5월24일까지다. 국회가 자체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필요한 실무적 기간을 감안하면 그 시한은 5월4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선출방식,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의 핵심 내용은 물론 논의 방식이나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서 개헌안 논의는 험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아직도 "MT가 괴로운 신입생" ▶6면

아이가 꿈이다-출산휴가 '논치' ▶18면

KIA 전장대-삼성전 팻딘 선발 ▶20면

### MB 옥중조사 무산 검찰 "추후에 조사"

110억원대 뇌물수수과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옥중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으나 2시간 만인 오후 3시 20분께 발걸음을 돌렸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1471)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는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구속수사 기한 내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검찰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한은 내달 10일까지다.

검찰은 이날 '다스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뜻을 꺾지 않아 앞으로도 검찰의 직접 조사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도시와 피부 사이  
빈틈없는 시티 선크어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HERA  
SUN MATE PROTECTOR  
SPF 50 PA+++  
C.U.T. System  
Control of UV Top

•전국 백화점 및 이모레키오셀리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hera.com •고객상담실: 080-023-5454